

##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가 직업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경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 The Influence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Nurse's Image on Job-esteem of Nursing Students

Kyeong-Sook Jeong  
Depar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가 직업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B시 소재한 간호학과 1학년,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s 사후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전공선택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65 \pm 0.66$ 점,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  $4.07 \pm 0.60$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전문적 이미지  $4.29 \pm 0.66$ 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97 \pm 0.57$ 점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존중감은 전공선택동기( $r=.48, p<.001$ ), 간호사 이미지( $r=.75,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업존중감의 영향요인은 간호사 이미지 중 전문적 이미지( $\beta=.29, p<.001$ ), 간호직 전망( $\beta=.27, p<.001$ ), 사회적 이미지( $\beta=.22, p=.001$ )와 전공선택동기 중 개인적 동기( $\beta=.24, p<.001$ )이었으며, 설명력은 총 64.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a nurse's image on their job esteem.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st to May 15th, 2022, enrolling 172 nursing students in a college located in B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BM SPSS 21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ssessment tools applied wer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scale, nurse's image scale, and job esteem scale. Our results determined that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level was 3.65, image level of the nurses was 4.07, and job esteem level was 3.97. Job esteem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 $r=.48, p=.022$ ) and nurse's image ( $r=.75, p<.001$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rofessional image, vision of a nursing career, personal motivation, and social image were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d the job esteem of nursing student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64.1%. Our findings indicate that to improve the job esteem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portrays a positive nurse image.

**Keywords** : Job-esteem, Motivation, Nurses, self-concept, Nursing, Students

---

\*Corresponding Author : Kyeong-Sook Jeong(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jksbook@hanmail.net

Received April 7, 2023

Revised May 15, 2023

Accepted June 2, 2023

Published June 30,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전공과 관련된 이론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 관련 실습을 통해 선택한 전공관련 직업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시기이다[1]. 특히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국민들의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청년 취업난이 증가하고 복잡하고 변화된 노동 환경 속에서도 간호학과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 학생들에게는 인기학과라고 할 수 있다[2]. 간호교육은 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함께 임상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환자에 대한 이해와 무거운 책임감, 건강문제와 생명을 다루는데 필요한 엄격한 행동규범 등을 학습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내적인 힘과 외적인 통제력을 갖추어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3]. 그러나 실제 임상현장의 간호사는 대학에서의 이론을 기초로 실제 수행에 적용하는 업무적응에 어려움, 폐쇄적인 간호조직문화 등으로 이직을 생각하고[4] 전문직 사회화 적응이 어려워 간호사를 중도에 포기하는[5]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간호학이 인기학문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스스로 간호학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6]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향후 간호의 질 향상과 환자중심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직업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믿고 있는 존경과 권위의 수준, 직업과 관련된 신념과 가치를 말한다[7]. 간호대학생들은 취업이 보장된 학과 선택으로 타 전공 학생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8] 과중한 학업 부담은 전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재학 중 전공을 포기하거나 졸업 후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9]. 그러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적 평판을 설명하는 직업존중감은 전공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10].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부터 간호대학생에게 직업존중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전공선택은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삶의 만족도를 얻기 위한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특히 전공선택은 미래 희망직업과 관계가 있어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의 적성과 흥미, 자신감이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12] 간호

학과의 경우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단지 취업 가능성, 부모의 권유나 성적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전공에 대한 회의감, 방황 등으로 중도 탈락하기로 한다[13]. 그러나 전공을 선택한 동기가 긍정적이면 그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존중감 개념이 포함된 직업존중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8,12]. 그러므로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는 간호학과의 경우 추후 간호사 직업에 대한 가치평가에 전공을 선택한 동기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가 간호에 가지는 신념, 가치, 생각, 관념 등의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이다[14].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15] 나아가 간호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긍지 및 자부심 정립에 영향을 주고[16]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므로[17] 저학년 때부터 긍정적인 간호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 영향요인으로 직업가치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연간 봉사활동 횟수, 봉사 교과 이수 여부, 성별[18], 전공만족도, 직업관[8]이 있었으며 공감능력, 고객지향성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19]. 그러나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를 영향요인으로 포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와 간호사 이미지가 직업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 직업존중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직업존중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 직업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 직업존중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직업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일 대학 간호학과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참여하기를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80부를 배부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부적절한 8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7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력 .90, 예측변수 수 11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의 표본크기는 152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적절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게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응답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것임과 연구 종료 즉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는 전공선택에 있어 자신이 특정 전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나 계기[20]를 말하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Han[20]이 구성하여 타당화 한 도구로, 개인적 동기 4문항, 사회적 동기 3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 동기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Han[20]의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 신뢰도 Cronbach's  $\alpha$ =.85, 사회적 동기 신뢰도 Cronbach's  $\alpha$ =.6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 신뢰도 Cronbach's  $\alpha$ =.86, 사회적 동기 신뢰도 Cronbach's  $\alpha$ =.69이었다.

#### 2.3.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의 총합으로. Yang[21]이 개발하고

Kang, Go, Yang, Kim[22]이 수정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통적 이미지 6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간호직 전망 3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Yang[21]의 연구에서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 신뢰도 Cronbach's  $\alpha$ =.95이었다.

#### 2.3.3 직업존중감

직업존중감은 자기 직업에 대하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 또는 기대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7], Rosenberg[23]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기반으로 Park[24]이 개발한 도구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95 이었다.

### 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 직업존중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확인하였다.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 직업존중감과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1학년이 58.1%, 2학년이 41.9%였으며, 여학생이 80.8%로 확인되었다. 평균 나이는 22.5세이며 종교가 없는 75.66%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2.8%, 전공 관련 봉사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1.7%이었으며 전공에 만족하는 대상자는 73.3%로 확인되었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rade	Junior	100	58.1
	Sophomore	72	41.9
Gender	Male	33	19.2
	Female	139	80.8
Age(year)	≤20	118	68.6
	21-25	29	16.9
	26-30	10	5.8
	≥31	15	8.7
			22.5 ± 7.65
Religion	Yes	42	24.4
	No	130	75.6
Hospital admission experience	Yes	108	62.8
	No	64	37.2
Volunteer experience related to major	Yes	89	51.7
	No	83	48.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26	73.3
	Moderate	42	24.4
	Dissatisfaction	4	2.3

### 3.2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 직업존중감 점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는 3.65±0.66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개인적 동기 3.89±0.79점, 사회적 동기 3.35±0.91점이었다. 간호사 이미지는 4.07±0.60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전통적 이미지는 4.10±0.73점, 사회적 이미지는 3.93±0.72점, 전문적 이미지는 4.297±0.64점, 간호직 전망은 3.79±0.71점 이었다. 직업존중감은 3.79±0.71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참고).

Table 2. Degrees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Nurse's Image and Job-Esteem. (N=172)

Variables	Range	Min	Max	M ± SD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1-5	1.71	5.00	3.65 ± 0.66
personal motivation	1-5	1.25	5.00	3.89 ± 0.79
social motivation	1-5	1.00	5.00	3.35 ± 0.91
Nurse's Image	1-5	2.55	5.00	4.07 ± 0.60
traditional image	1-5	2.00	5.00	4.10 ± 0.73
social image	1-5	2.20	5.00	3.93 ± 0.72
professional image	1-5	2.50	5.00	4.29 ± 0.64
vision of nursing career	1-5	2.00	5.00	3.79 ± 0.71
Job-esteem	1-5	2.76	5.00	3.97 ± 0.57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 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은 종교(t=2.32, p=.021), 전공만족도(F=10.34,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를 사후분석 결과, 전공에 '매우 만족'군이 '보통'군보다 직업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s in Job-Esteem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or F) (p) Scheffe's
Grade	Junior	3.99 ± 0.56	0.52 (.603)
	Sophomore	3.94 ± 0.59	
Gender	Male	3.95 ± 0.73	-0.15 (.884)
	Female	3.97 ± 0.53	
Age(year)	≤20	3.95 ± 0.53	0.64 (.589)
	21-25	4.09 ± 0.77	
	26-30	4.00 ± 0.54	
	≥31	3.87 ± 0.44	
Religion	Yes	4.14 ± 0.47	2.32 (.021)
	No	3.91 ± 0.59	
Hospital admission experience	Yes	3.94 ± 0.58	-1.02 (.308)
	No	4.03 ± 0.55	
Volunteer experience related to major	Yes	3.98 ± 0.52	0.31 (.760)
	No	3.96 ± 0.62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sup>a</sup>	4.08 ± 0.52	10.34 (.001)
	Moderate <sup>b</sup>	3.64 ± 0.59	
	Dissatisfaction <sup>c</sup>	3.94 ± 0.73	

### 3.4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 직업존중감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업존중감은 전공선택동기(r=.480, p<.001), 간호사 이미지(r=.752,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전공선택동기가 긍정적일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직업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 with Job-Esteem,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Nurse's Image

Variables	JE	MMS	pm	sm	NI	ti	pi	si	vn
JE	1								
MMS	.480 (.001)	1							
pm	.567 (.001)	.505 (.001)	1						
sm	.186 (.014)	.250 (.001)	.299 (.001)	1					

NI	.752 (.001)	.477 (.001)	.505 (.001)	.250 (.001)	1				
ti	.610 (.001)	.416 (.001)	.461 (.001)	.196 (.010)	.908 (.001)	1			
pi	.678 (.001)	.389 (.001)	.474 (.001)	.185 (.015)	.864 (.001)	.718 (.001)	1		
si	.662 (.001)	.419 (.001)	.383 (.002)	.237 (.001)	.886 (.001)	.741 (.001)	.646 (.001)	1	
vn	.638 (.001)	.413 (.001)	.392 (.001)	.267 (.001)	.703 (.001)	.507 (.001)	.609 (.001)	.507 (.001)	1

JE : Job-esteem, MMS :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pm : personal motivation, sm : social motivation, NI : Nursing image, ti : traditional image, si : social image, py : professional image, vn : vision of nursing career

### 3.5 대상자의 직업존중감 영향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업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전공만족도와 종교를 더미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09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사 이미지 중 전문적 이미지( $\beta=.29, p<.001$ ), 간호직 전망( $\beta=.27, p<.001$ )와 사회적 이미지( $\beta=.22, p=.001$ ), 전공선택동기 중 개인적 동기( $\beta=.24, p<.001$ )가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64.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 $F=77.37, p<.001$ )(Table 5 참고).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Job-Esteem in Participant (N=172)

Variables	$\beta$	t	p	Adjusted $R^2$	Dubin Watson
(constant)		3.53	.001	.641	2.09
professional image	.29	4.59	<.001		
vision of nursing career	.27	4.51	<.001		
personal motivation	.24	4.52	<.001		
social image	.22	3.25	.001		

Adjusted  $R^2=.641, F=77.37,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미지가 직업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점 3.65점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59점[25]과 비슷한 결과로 확인되었으며,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3.34점[11]보다 높게 나타나 전공선택동기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간호학과 학생들은 적성이나 흥미를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이나 수입, 합격 위주의 대학진학 등을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6].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 노인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등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는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의 졸업 후 직종 선택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며 진로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27,28] 등이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점 4.07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전문적 이미지는  $4.29 \pm 0.64$  점, 전통적 이미지는 4.10점, 사회적 이미지는 3.93점, , 간호직 전망은 3.79점 순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29]와 같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해주었다. 최근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을 보면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의 책임감, 숭고함을 더 많이 느끼고[30] 간호에 대한 신뢰성과 함께 전문가적인 숙련성을 높게 느낀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망 있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가족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을 나타내는 간호직 전망 영역이 여전히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이미지는 일반인들에게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직의 필요조건인 사회적 지위, 존경, 자율성의 이미지는 부족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음이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대중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된 틀 안에서 병원 중심의 간호전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도를 강화시키고, 보건외로 정책이나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간호직 전망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학드라마와 같은 TV 매체에서 능력과 역량을 겸비한 전문직으로서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다소 정적이고 수동적인 간호사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31] 간호직 전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므로 SNS나 대중매체 활용을 통한 활발한 사회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직업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79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의 3.65점보다 높았으며, Jung[18]의 3.88점보다는 낮았다. 이렇듯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직업존중감 도구가 간호의 특수한 직업적 속성이 반영되지 않은 관광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24]를 사용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간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직업존중감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은 종교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전공에 만족하는 군'이 '보통 군'에 비해 직업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8,18]와 일부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지만 종교와는 차이가 없었던 연구결과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업존중감은 전공선택동기, 간호사이미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 간호직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32] 전공선택동기가 긍정적일수록 자신이 소속된 직업에 가치를 더욱 부여하게 되어[33] 미래에 갖게 될 간호사라는 직업과 관련된 신념과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사 이미지 중 전문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 사회적 이미지, 전공선택동기 중 개인적 동기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총 64.1%였다. 이 중 간호사 이미지 중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존중감 영향요인으로 전공선택동기,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본질적 긍정적 가치를, 사회적으로는 외재적 상대적 가치와 긍정적 평판과 인정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된다[34]. 간호대학생들은 COVID-19의 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간호사는 숙련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적인 전인간호를 제공하며 스마트모니터링을 통한 원격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의료직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어[35] 간호사의 전문적 이미지에 대한 높

은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 여겨지며, 이러한 인식이 자신의 미래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 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에 영향요인으로 간호직 전망과 사회적 이미지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 중 간호직 전망 정도는 낮았으나, 사회적으로 간호사는 평생 근무가능하고 안정적인 보수와 채용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어[36]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직업적 가치가 영향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COVID-19 위기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열악한 직업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사회적으로 간호가 '소명의 직업'으로 긍정적인 인정이 부각된 점 등이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간호사 윤리선언 및 윤리강령에 기초를 둔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공선택동기 중 개인적 동기가 직업존중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동기는 자신의 적성, 흥미, 재능, 장애직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다[20]. 최근 취업의 용이성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아 간호학을 선택하고 있다[30].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경우 졸업 후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7]는 연구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간호사 이미지 중 전문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 전공선택동기 중 개인적 동기, 사회적 이미지로 확인되었다. 높은 직업존중감은 가치인식과 자부심 향상으로 연결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보람과 애착을 가지고 유지하려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38]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간호사의 이미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간호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존경, 자율성의 이미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22]은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개별적인 차원에서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고등학교에서 업무를 하는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간호사 이미지 확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 유무 등을 고려한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2] H. Cho, G.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0, No.2, pp.163-173, 2006.
- [3] E. J. Lee, W. H. Jun,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1, pp.163-171,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163>
- [4] S. H. Lee, Factors influencing new nurses' recognition of turnover intention : Content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9, No.2, pp.81-87, 2021.  
DOI: <https://doi.org/10.22678/JIC.2021.19.2.081>
- [5]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3, pp.285-292, 2007.
- [6] S. R. Le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2011.
- [7] D. G. Miller, *Effect of value-based Training on Job-Esteem and Hospitality Values of Front-line Hotel Employ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United of America, 1999.
- [8] B. H. Son, Y. M. Kim, I. K. Jun,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0, No.3, pp.240-249, 2011.  
DOI: <http://dx.doi.org/10.5807/kiohn.2011.20.3.240>
- [9] K. M. Yang,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445-453,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45>
- [10] C. K. Y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esteem Attitude and a Major in University Students:The Case of Undergraduates Majoring Tourism Studie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19, No.4, pp.69-86, 2007.
- [11] M. H. Lee, A. Y. Ah, Mediating Effects of Majors' Satisfaction on Majors Selection Motivation and Career Choice Facto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5, No.2, pp.437-453, 2017.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7.25.2.020>
- [12] D. K. Lim, H. S. Kwon, W. J. Oh,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ability, Employment Strategies, Major Hope for Employment-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ax and Accounting-,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 Vol.6, No.4, pp.85-109, 2016.  
DOI: <https://doi.org/10.35273/jec.2016.6.4.005>
- [13] M. K. Joo, W. J. Lee, I. Y. Hwang, Impa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to Major Satisfaction and Campus-lif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learner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1, No.1, pp.47-58, 2017.
- [14] E. J. Yeun, *A study on professional nursing image of nursing unit manager: Q-methodology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995.
- [15] M. R. Cho, et al. Impacts of Image of nurses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2, pp.101-110,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2.101>
- [16] L. Y. Kelly, Nursing image: A question of identity. *Nursing Outlook*, Vol.28, No.3, pp.202, 1980.
- [17] K. M. Lim, H. Y. Kim, G. J. Park,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423-431,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423>
- [18] K. I. Jung, Factors affecting the Job-esteem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 No.14, pp.1-15, 2021.  
DOI: <https://doi.org/10.52902/ksjc.2021.14.1>
- [19] H. Jeong,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Job-esteem and Empathy on Customer orien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0, pp.599-607,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10.599>
- [20]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p1-46, 2014.
- [21] I. Sim, Yang,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4, No.2, pp.289-306, 1998.
- [22] H. Y. Kang, M. H. Go, J. J. Yang, S. M. Kim,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3, No.6, pp.792-801, 2003.
- [23] M. Rosenberg,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nxie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1, pp.135-152, 1962.  
DOI: [http://dx.doi.org/10.1016/0022-3956\(62\)90004-3](http://dx.doi.org/10.1016/0022-3956(62)90004-3)
- [24] S. M. Park, *The Effects of Major-related Job-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25] K. S. Jeong, The Influence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 Occupational Values and Worry on Nursing Student's Gri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2, pp303-311,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12.303>
- [26] Y. J.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261-270,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261>
- [27] H. E. Jo, Y. H. Ahn, S. M. Ryu, J. Y. Lim, H. J. Kim, The Effect of the Image of Nurses and the Major Satisfaction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Vol.36, No.3, pp.1008-1017, 2019.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19.36.3.1008>
- [28] H. S. Park,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3, No.1, pp.35-45, 2018.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8.43.1.35>
- [29] S. M. Choi, Comparison of Nurse' image among by Grad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Vol.2, No.1, pp.32-35, 2018.
- [30] O. S. Lee, J. H. Lim,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5, pp.479-488,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5.479>
- [31] Y. H. Yom et al, An Analysis of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on Korean TV Drama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 No.3, pp.412-423, 2015.  
DOI: <https://doi.org/10.22650/JKCN.2015.21.3.412>
- [32] S. M. Koo, Y. M. Jang, M. H. Kang,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thical Awareness, and Nurse Image on Career Identity in a Pandemic Situation,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8, No.4, pp.371-381, 2022.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22.28.4.371>
- [33] S. H. Shin, J. W. Lee, C. T. Kim, S. H. Shin, The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0, pp.95-10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95>
- [34] K. I. Jung, H. J. Choi, A Concept Analysis of Job-esteem of Nursing Students, *Crisisonomy*, Vol.4, No.5, pp.105-118, .2018.
- [35] H. N. Choi, E. G. Oh, J. Y. Lee, The Image of Nurses in Newspaper Articles during COVID-19 Er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11, pp.626-637,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11.626>
- [36] C. H. Kim, J. Y. Kim,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belongi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work value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3, pp.259-268,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59>
- [37] B. W. Seo,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3 No.2, pp65-81, 2013.
- [38] D. W. Ko, M.Y. Xu, S. J. M, Influences of Job-Estee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Orientation of Hotel Employee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Vol.30, No.4, pp.93-115, 2015.

정 경 숙(Kyeong Sook-J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자아존중감, 걱정, 건강증진행위